■ 설 앞둔 광주 우산동 인력시장 근로자들의 명암

"일 할 수있어 행복…고향갈 생각 설레요"

"공치는 날 다반사…차라리 설 없었으면"

지속된 경기 침체 속에 하루 하루 품팔아 생계를 잇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설이 다가올수록 속이 바싹바싹 타 들어간다. 명절을 코앞에 둔 이들의 소원은 한결같다. 남은 며칠 동안 서너 번만이라도 일을 해 그리운 가족과 고향에서 설을 함께 보내는 것이다.

소원은 같지만 모두가 고향에서 설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설을 앞두고 찾은 인력시장에도 명암이 엇갈렸다.

장기간 일용잡부를 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인맥(?)이 있어 일주일에 서너 차례라도 일을 하면 25만원(일당 8~9만원) 정도라도 손에 쥘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루 일감을 얻기도 힘들다.

지난 6일 새벽 6시 광주시 북구 우산동 근로자 대기소. 영하 3도의 찬바람에 옷깃을 여민 10여명의 남자들이 장작불 주변에 모여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호명된 사람들은 1~2명씩 승합차를 타고 일터로 떠났다.

인력시장을 찾은 사람들은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임금 체불로 직장을 그만둔 회사원, 가게 문을 닫은 자영업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 그만두고 거리로 나선 젊은이까지….

2년 전 서울에서 광주로 왔다는 최모(50·광산구 우산동)씨는 막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가락동시장에서 일하던 최씨는 알코올중독 증세를 보이면서 일을 그만두게 됐다. 한 달 수입이 고작 70만~80만원에 불과하지만 최씨의 얼굴은 무척 밝았다. 지난해 8월 태어난 아들의 재롱 덕분이다.

지난 6일 새벽 광주시 북구 우산동 근로자대기소 앞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이 장작불에 언 손을 녹이며 초조하게 일감을 기다리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이번 설에는 2년 만에 처음으로 집사람, 두 살 배기 아들과 함께 인천에 사는 팔순 노모를 찾을 생각이다.

4년째 건설 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려온 이모(40·북구 두암동)씨는 "돈벌이는 시원찮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행복"이라며 조그만 선물을 손에 들고 고향을 찾을 생각에 밝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렇지만 아예 설이 없었으면 하는 이들도 있다. 직장을 잃은 뒤 무작정 막노동판에 뛰어든 사람들은 공치는 날이 다반사고, 아예 귀향을 포기한 이들도 많다.

공사장들은 워낙 인부를 적게 쓰기 때문에 사전에 경험이 많거나 아는 사람을 쓰는 경우가 많아 일거리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지난해 하반기 직장을 그만둔 박모(41·북구 신안동)씨는 "일을 해야 설을 쇠든지, 부모님을 뵙든지 할 텐데, 가족들에게 미안할 뿐"이라며 고개를 떨궜다.

실직 후 1년 전부터 인력시장을 찾은 이모(38·서구 농성동)씨는 "지난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일거리를 잡지 못했다"면서 "설에 가족들과 따뜻한 떡국 한 그릇 먹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8시 인력시장은 파했다. 2시간 동안 언 손을 녹이며 기다린 끝에 일자리를 찾은 근로자는 대략 3명. 나머지 10여 명은 어깨를 늘어뜨리고 발길을 돌렸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무죄 판결 2제

공룡화석 가격 부풀린 혐의 납품업자

광주고법 "계약서 보니 납품가 속이지 않았다"

광주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장병우)는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47)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근로기준법 위반죄만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강씨가 공룡화석을 50만달러(6억4천만원)에 사서 125만달러(16억원)에 속여 판 것으로 인정했지만, 당시 매매계약서와 정황 등을 감안했을 때 실제 125만달러에 구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3년 7월 21일께 네덜란드 에코드롬 박물관으로부터 50만달러에 산 알로사우루스 프라길리스 전신 화석을 125만달러에 산 것처럼 속여 해남군으로부터 16억원을 받고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씨가 제시한 네덜란드 판매대행사와의 '125만달러 계약서'에 해체·포장 및 기타 모든 처리비용을 비롯해 보험료 등 구체적인 특약조건이 모두 포함돼 완성도가 높은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강씨에게 1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해남군 공무원 정모(52)씨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장애등급 속여 보험금 타낸 혐의 40대

광주고법 "조작·은닉 등 범죄 증명 부족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장병우)는 7일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생명보험사 과장 나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씨가 증상을 과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의사의 객관적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또 장애등급을 속이기 위해 자료를 조작하거나 보험사에 정보를 은닉했다고 단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나씨는 모 보험사 과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 12월께 목포 유달경기장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척추 손상 등의 부상을 입고 2년간 병원치료를 받았다.

나씨는 사고 6개월 후인 2003년 6월께 서울 한 병원에서 부당하게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자신이 일하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총 8억4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나씨가 높은 장해등급을 받으려고 재활치료를 받던 병원이 아닌, 서울의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점과 직업 특성상 자신이 1급 장애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원참 〈8024〉 김종두

경유에 등유 섞어 판 2곳 적발

석유관리원 호남지사는 7일 유사석유를 만들어 판매한 화순군 A 주유소와 B 주유소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 화순군에 통보했다.

석유관리원의 검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는 경유보다 ℓ당 300~400원이 싼 난방용 등유를 경유와 5 : 5 또는 4 : 6 비율로 혼합,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부부싸움 말리다 진짜 싸움 말려들어

쌍나팔

○…광주동부경찰은 7일 식당에서 일어난 부부싸움을 말리려다가 함께 주먹을 휘두른 최모(53)씨 등 3명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7일 새벽 2시50분께 광주시 동구 소태동 모 식당에서 술을 자주 마신다며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식당 주인 이모(42)씨 부부를 진정시키려다 함께 폭행했다는 것.

○…부부싸움을 말리려다 봉변을 당한 최씨 등은 "잘 아는 사이라 싸움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 했는데 이렇게 됐다"면서도 "부부싸움을 말리길 잘한 것 같다"고 한마디.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 또 편의점 강도

어제 오전 봉선동서 … 올들어 5차례나

7일 오전 7시50분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 A편의점에 강도가 침입해 여종업원 김모(여·20)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33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괴한이 갑자기 흉기를 들고 들어와 계산대에 있는 현금을 털어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범인은 미리 준비해온 비닐봉지를 김씨에게 건네 돈을 담게 한 뒤 이를 챙겨 달아났다.

앞서 지난달 17일 오전 6시30분께 남구 봉선동 B편의점에도 동일 수법의 강도가 침입, 종업원 구모(21)씨를 위협한 뒤 현금 150만원을 챙겨 도주했다. A편의점과 B편의점은 반경 500m 내에 위치해 있다.

경찰은 두 편의점의 강도사건이 모두 휴일 오전 시간대에 일어난 점과 범행도구나 수법이 비슷한 점으로 미뤄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동종전과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에서 올 들어 편의점 강도 사건이 알려진 것만 5건으로, 편의점이 주된 범행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북구 일곡동, 지난달 20일 북구 두암동의 편의점에 각각 침입한 강도는 경찰에 붙잡혔으나 지난달 2일 광산구 하남동의 한 편의점에 침입한 2인조 강도는 아직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딸 살해 후 자살 기도

목포경찰, 30대女 영장

목포경찰은 7일 전세금 반환문제와 가정불화로 고민하다 자신의 딸을 목 졸라 살해한 강모(여·34)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께 자신의 집 안방에서 딸 최모(3)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자살을 기도했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조선대 교수 채용 비리 수사

광주지검, 압수수색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재구)는 조선대 S교수가 전임강사와 조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최근 S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S교수가 2007년, 2008년 전임강사와 조교수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S교수가 소속된 학과에서는 2007년 상반기에 전임강사 공개 채용이 있었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조교수 공채도 실시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 분석과 금융계좌 추적 등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되면 S교수를 배임수재 혐의로 소환할 방침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